

한류 작품들의 한국대중예술사에서의 위상

이영미

대중문화 평론가

성공회대 겸임교수

1990년대 중후반 중국에서 시작된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와 대중가요의 이른바 ‘한류’ 바람이, 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한류 현상을 단일한 원인으로만 설명하기는 힘들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20세기 중반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아시아의 후진국으로 출발하여, 초고속의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고 현대사회의 여러 양상을 보이게 된 한국의 변화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고, 초기의 한류가 현대화 수준에서 다소 뒤떨어진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것을 말해준다. 또한 한국의 대중예술을 받아들인 여러 나라의 상황도 중요한 요인일 터이다. 같은 작품이 여러 나라에서 인기를 모은다고 하지만, 그 인기 요인은 그 작품을 받아들인 여러 나라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 이와 함께 다른 한편, 한류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한국대중예술 내의 요인, 즉 1990년대 후반 이후의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와 대중가요가 지닌 특성에서 기인하는 측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발표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마지막 부분과 관련 있다.

이 발표를 통해 한류의 중심인 2000년대 이후 대중가요와 텔레비전 드라마가 한국대중예술사 내에서 어떤 역사적 위상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현재 한류 현상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케이팝(K-pop)과 텔레비전드라마 <겨울연가> 부류의 작품들이 정작 한국 내에서는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한 지점이다. 한국 내에서 높은 인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평론가나 여론주도층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작품들이, 왜 외국에서는 바람몰이를 하며 인기를 얻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의 대중가요사를 거시적으로 살펴보면, 젊은 세대가 새로운 양식에 대한 취향을 앞장세우며 구세대와 취향 대립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시기와, 젊은 세대와 중장년 세대들과의 취향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인기 경향 안에서 취향 대립을 봉합하고 있는 시기가 교차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1930년대, 1970년대, 1990년대에 유행했던 대중가요의 새로운 경향은 신세대와 구세대 간의 날카로운 취향 대립을 야기하며 과감한 양식상의 변화가 이루어졌던 시대임에 비해, 1960년대, 1980년대의 주류 인기 경향은 상대적으로 세대 간 취향의 대립이 그리 심각하게 유발하지 않은 상대적 안정기였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으로 볼 때에 2000년대 이후의 케이팝은, 세대 간 취향 대립이 그리 심각하지 않은 시대이며, 이러한 기술적 발전과 안정감이 여러 나라에 보편적 호소력을 발휘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한 편 텔레비전드라마 분야에서는 1990년대 이후의 작품들이, 이전에 비해 두 가지 변화를 이룩한 것이 국경을 넘는 호소력을 발휘했다고 보인다. 1992년은 MBC의 <질투>로 이른바 트렌드드라마의 시대가 열린 해이며, 대중가요와 영화등 대중예술사 전체 대대적 변화가 이루어진 해이기도 하다. 1990년대 이후의 텔레비전드라마는 두 가지 지점에서 이전의 경향과 결별하였다. 하나는 일일연속극으로 축적된 관행을 낡은 것으로 밀어내고, 야외 로케이션 증가 등으로 현격하게 향상된 시각성과, 응집력 있는

갈등으로 전개되는 사건 등을 지닌 미니시리즈가 새로운 경향을 이끌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대중예술사의 초창기에서부터 오랫동안 축적된 이른바 ‘신파성’ 으로부터 현격하게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도 일일연속극이 여전히 이전의 관행을 유지함으로써 시청자의 노령화가 초래되고 있는 것에 비해, 한류의 중심에 서 있는 미니시리즈와 특별기획 드라마들은 이러한 특성으로 보편적 호소력과 재미를 획득하는 데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약력: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같은 대학원 졸업. 문학석사. 1984년부터 노래와 연극, 대중예술에 대한 연구와 평론 활동을 해왔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진보적 연극운동(마당극운동), 진보적 노래운동(민중가요운동)에서 간여했으며, 1990년대에는 주로 연극과 대중가요사에 대한 연구를, 2000년대 이후부터 방송드라마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저서로, [마당극 양식의 원리와 특성](1997), [마당극 리얼리즘 민족극](1997), [한국대중가요사](1998), [한국인의 자화상, 드라마](2008), [대학로 시대의 극작가들](2009) 등이 있고, [한국현대예술사대계] 총 6권(1999-2005)을 기획총괄, 공동집필했으며 마당극에 대한 인터뷰집 [구술로 만나는 마당극] 총 5권(2011)을 냈다.